

## 신자 칼럼 (최승봉 허카벨 부제님)

칼럼 + 교회 상식 + 문화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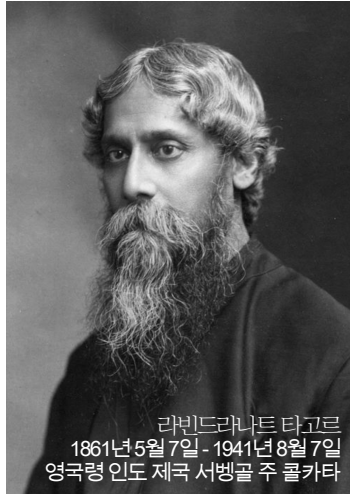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벵골의 시인, 극작가, 이야기 작가, 작곡가, 화가, 철학자, 사회 개혁자, 교육자였다. 1913년에 그는 최초의 비유럽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타고르는 8살 때 시를 쓰기 시작하여, 16세에 “Sun Lion”이라는 필명으로 첫 시를 발표하였다. 위대한 문학가, 인도주의자 및 국제주의자인 타고르는 2000여곡을 작곡할 만큼 음악을 비롯한 예술에 폭넓은 조예를 갖고 있었다. 타고르가 작곡한 “Jana Gana Mana”는 인도 국가로 채택되었고, “Amar Shonar Bangla”는 방글라데시 국가로 채택되었다. 또한, 그의 작품은 스리랑카 국가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타고르는 말했다. “죽음은 빛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왔기 때문에 등불을 끄는 것이다.”

또한 한국을 소재로 한 시 <동방의 등불>에서 타고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축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이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역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전망한 적이 있다.

최근에 뉴저지 하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KBS뉴스를 보았다. 11월 22일로 정한 이유는 김치의 여러 재료가 하나하나(11) 모여 스물두가지(22) 이상의 건강 기능적 효능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1861년 5월 7일 - 1941년 8월 7일  
영국령 인도 제국 서벵골 주 콜카타

2004년 있었던 나의 일화 하나를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신학교에 입학하여, 2007년 졸업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을 때 전립선 비대증으로 친한 친구 Dr. Simon Yim으로부터 전립선 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불행히도 혈압약 (Diovan)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76년부터 RWJ 병원에 30년간 근무 하면서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병원 직원들과 함께 있다 보니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혈압은 120/70로 정상 범위에 있었다. 입원 후 48시간이 지나고 퇴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심장전문의인 아들이 내가 혈압약 복용을 중단할까봐 걱정하며 말했다. “아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혈압이 올라갈 거야.” 그 이후로 나는 내 삶 전체 생활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었고, 언제나 Hellen Mallicoat의 시 '내 이름은 I AM (My name is I AM)'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갑자기 내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I AM 이란다.”

잠시 멀추신 동안 나는 기다렸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과거의 실수들과 후회들에 머물러 과거에 살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없을 것이다.  
내 이름은 I WAS 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미래의 문제들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없을 것이다.  
내 이름은 I WILL BE 가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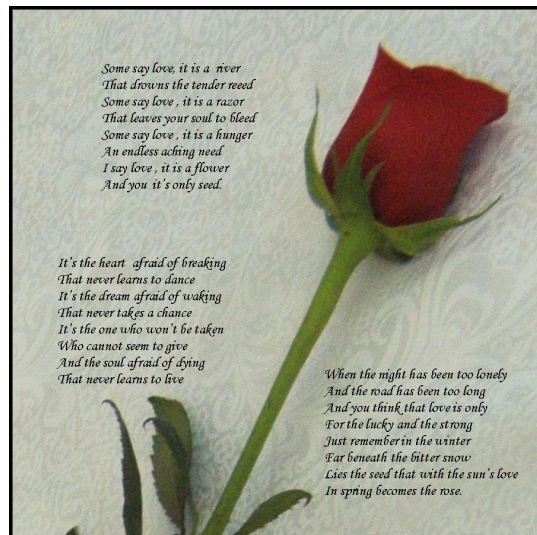
네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은 I AM 이기 때문이다. (칼출기 3:14)

전체적인 내 삶의 방식을 바꾼 이후, 15년간 내 혈압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혈당 수치도 정상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거의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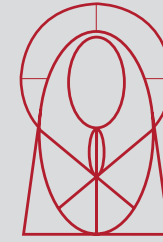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묵상하기 좋은 노래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만다 맥브룸 (Amanda McBroom)의 The Rose이다.

### The Rose (장미)

어떤 이들은 사랑이란 연약한 갈대들을 휩쓸어 가는 강물이라고 말해오  
어떤 이들은 사랑이란 당신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면도날과 같다고 말해오  
어떤 이들은 사랑이란 끝없이 목마르게 갈망하는 배고픔이라고 말해오  
난 사랑이란 꽃이라고 말하겠어  
그리고 당신을 그것의 유일한 씨앗이죠  
부서지기 두려워하는 마음을 결코 고동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꽃에서 깨어나길 두려워 한다면 결코 기쁨을 잡지 못하죠  
그것은 잡히지 않으며 줄 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혼은 결코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죠  
밤이 너무 외롭고 당신이 가는 길이 너무 길어서  
사랑은 오직 온 좋고 강한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꼭 기억해요  
겨울에 저 눈 아래에는 씨앗이 있다는 것을  
봄이 되면 그것은 태양의 사랑으로 장미로 피어난다는 것을



사순  
제 2주일  
2023년  
03월 05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예수님의 변모>  
라파엘, 1516-1520  
바티칸 미술관

###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창세기12,1-4,7  
# 화답송 시편 33(32),4-5,18-19,20과 22(©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1,8L-10  
# 복음 환호송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태오17,1-9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 성가 입당 72 봉헌 210 성체 165 파견 280

**✿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경자(마리아) - 가족
- 백창례 - 가족
- 신성희(엘리사벳) - 안을봉(요셉) 가족
- 장인석(미카엘) - 가족
- 김익록(필로메나) - 김진(다니엘) 가족
- Joan Williams - Gareth Jones, 김세현(스텔라)

- 손광석(가브리엘), 오정인(마리아)
- 한창수 - 최영찬(요한), 레지나
- 한상철(빈첸시오) - 한상철(빈첸시오)

**✿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염은미(클라라)
- 김종숙(마리아)
- 오경선(원선시오)
- 박화성(헬레나)
- 오용덕(헨리코), 오경숙(세실리아)
- 곽 율리아나
- 박규희(루시아)
- 방상호(요한), 방진숙(테레사)
- 이종실(프란치스코)
- 송광석(어거스틴)
- 정서우(Lauren)
- 성수영(라파엘라)
- 성낙철(안드레아)
- 구역회 못나오시는 구역원들
- 신설 바다의 별 Pr.

- 에디슨 한인 성당 교우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63명).....\$1,491
- 2차 헌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3,336
- 교무금.....\$1,100

채희백(3-4)	이금주(3)	오용운(2)
곽율리아나(3-4)	임문수(3)	추승호(1-2)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박화성(헬레나)	곽 율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사순절 의무사항**

-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 사순 기간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킨다.
- 만 18세 ~ 만 59세 모든 성년자들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 만 14세 이상은 금육재를 지킨다.
- St. Patrick's Day(3/17, 금)에는 금육재의 의무가 관면된다.

**✿ 2차 헌금**

- 3월 12일: 유틸리티
- 3월 26일: 부활절 꽃 장식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 미사**

- 3/26 주일 (사순 제5주일) 10시 30분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께서 우리 성당에 오시어 현지 공동체와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 3월 9일(목) 평일 미사는 본당 사정으로 오전 8시에 봉헌됩니다.**

**✿ 2023년 3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2/28까지 약정 금액은 \$11,031 (목표금액의 29.81%, 39가정 참여)입니다.

**✿ 예비자 교리 모집**

- 예비자 교리반을 곧 시작합니다. 예비자 교리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 또는 교육분과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 허정 교육분과장 732-718-4569 / 사무실 732-258-5998

**✿ 기획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 3월 5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사순강독 : Eucharistic Revival 성체성사에 대하여**

- 일시 및 장소: 3월 8일(수) 오전 11시 친교실
- 준비물: 가톨릭성가, 예비신자 교리서
- 문의: 허정 교육분과장(732-718-4569)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3월 12일(주일) 친교실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3월 26일(주일) 미사 후 성당
- 레지오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써, 협조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 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2023년 2차 정기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3월 26일(주일) 친교실 회의실

**✿ Diocesan Three Day Lenten Mission 메타천 교구 사순절 3일 미션**

- 축복의 성사를 통해 3일간 진행되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3월 6일(월), 7일(화), 8일(수) 오후 6시 30분
- 3월 8일(수) (체키오 주교님 미사 7시 30분)
- 장소: 메타천 주교좌 St. Francis of Assisi 대성당

**✿ 미혼모 및 노숙자 가정 아이들을 위한 육아용품및 장난감 기부**

- 뉴브런즈워 렛거스 카톨릭 센터에서 미혼모 및 노숙자 가정들 돌보는데 아이들 용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가정에서 아이들이 더이상 갖고 놀지 않는 깨끗한 장난감, 교구, 책, 작아서 못입는 옷들을 나이별로 잘 정리해서 3/12(주일)까지 기부해 주시면 자모회에서 센터로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한지혜 크리스티나 자모회장 (718) 431-3018

**✿ 창세기 12,1-4ㄱ**

그 무렵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1,8ㄴ-10**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태오 17,1-9**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마태 17,7)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하지 마라.  
<대전교구 정준호 베드로 신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높은 산에 오릅니다. 이른바 영광스러운 변모사건은 선택된 사도들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모의 중요한 점 하나는 구름 속에서 나왔던 소리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불안함을 동반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경험을 예상하든, 그렇지 않든 무언가를 두렵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식은땀이 나는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가가시어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면발치에 계시던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대십니다. 이 광경을 한 번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께 다가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대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경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위태로움에 대한 두려움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상태에서 벗어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주간의 모토로 마음 속에 새기며 지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나의 하루하루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닥쳐와 내가 두려워하더라도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말씀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2. 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까?

